



www.at.or.kr

호주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3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3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호주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2. 음료류 (인스턴트커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인스턴트커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3. 면류 (건면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건면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4. 주류 (맥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맥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5. 제과류 (비스킷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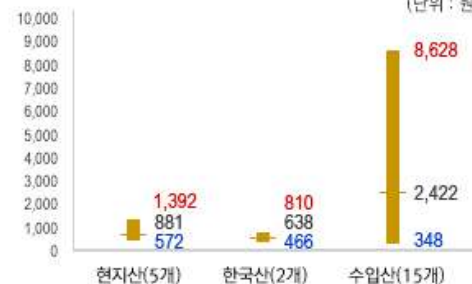


6. 소스류 (드레싱)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드레싱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호주 달러의 경우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3월 20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870.04 원

1~3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호주



1. 김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2)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2. 음료류 (인스턴트커피)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2) 원산지 별 인스턴트커피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3. 면류 (건면류)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2) 원산지 별 건면류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4. 주류 (맥주)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2) 원산지 별 맥주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5. 제과류 (비스킷류)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2)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6. 소스류 (드레싱)

● 현지산 ● 한국산 ● 수입산

2) 원산지 별 드레싱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음료류

수요 상승 ▲ “ 독특하지만 매력적인 맛으로 소비자 잡은 알로에 베라 음료 ”

1986년 개업하여 호주에 13개 분점을 가지고 있는 수입식품 전문 유통회사 Lay Brothers Asian Food Wholesaler 구매 담당자 Ms. Tian은 한국 알로에 베라 음료수가 호주에서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알로에 베라 음료의 인기 요인으로 다른 음료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맛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알로에 베라 음료와 비슷한 맛을 가진 제품이 없는 것도 강세를 띄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유사품이 없는 동안은 알로에 베라 음료의 인기가 유지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지켜본다고 밝혔다.



[알로에 베라 음료]

수요 상승 ▲ “ 이름도 ‘오이시’ 건강해서 더 ‘오이시’ ”

2007년부터 호주에서 아시아 제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Evermore (Group) Pty Ltd의 담당자 Mr. Lawrance은 인터뷰에서 Oishi社의 음료제품이 수요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Oishi社의 비타민, 식이섬유, 차(茶)류 음료는 고객들에게 간편히 마실 수 있는 건강음료로 인식되고 있다며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호주에서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까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환영받고 있다며 Oishi社가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기에 호조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이시社 일본차(茶)]

*오이시(おいしい): 일본어로 “맛있다”는 표현

수요 감소 ▼ “ ‘소주’가 뭔가요? ”

호주에서 한국 식료품을 유통하고 있는 Samsung Trading Pty. Ltd.의 Mr. Jang에 따르면 한국 소주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판매량 하락의 이유로 맛과 광고부족을 꼽았다. 먼저 소주의 맛이 호주 소비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아 일부 아시아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팔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광고부족으로 인지도를 제고시키지 못한 것도 판매량 하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잘 팔리는 수입 주류를 보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고객들이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한국 제품들이 다양한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소주]

스낵류

수요 상승 ▲ "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요 "

호주에서 각종 슈퍼마켓, 소매점과 레스토랑에 수입식품을 납품하고 있는 Samsung Trading Pty. Ltd.의 Mr. Jang은 농심 새우깡의 인기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새우깡의 인기비결은 '맛'에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농심제품의 경우, 해외에서도 농심이라는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가 있는 편이라 유사제품이 존재함에도 잘 팔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심 새우깡]

면류

수요 상승 ▲ " 수요 상승으로 가격이 오르는 한국 갯짬뽕 "

호주 골드코스트 지역에서 한국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Korean Mart Surfers Paradise의 점장 Mr. Zheng에 따르면 한국 갯짬뽕의 수요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은 호주에서도 인기가 있는 편이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로 인해 가격 역시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호주달러가 강세를 이어가는 편이지만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추세를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삼양사 갯짬뽕]

기타 가공식품

수요 상승 ▲ " 호주 소비자의 마음을 빼앗은 두루두루 만두 "

한국 스낵, 음료, 면과 냉동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Korean Mart Surfers Paradise의 점장 Mr. Zheng에 따르면 CJ사의 두루두루 냉동만두가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호주 내에서 냉동만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판매량 상승세를 설명했다. Mr. Zhang은 뉴스매체인 The Huffington Post나 식품잡지 같은 곳에서 맛있는 만두집을 소개하거나 만두 빚는 방법이 다수 게재되고 있어, 이 같은 트렌드를 타고 한국 냉동 만두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CJ사 두루두루 만두]

소스류

수요 증가 ▲ “ 해외식품 유입에 따라 자연스레 식탁에 자리한 수입 소스 ”

가공식품 수입유통업체인 Premier Food And Beverages Pty Ltd의 Mr. Ian은 2월에 독일에서 들여온 Gypsy sauce(집시 소스)을 인기품목으로 선정했다. 이 Gypsy sauce는 Demi-glaze sauce(데미글라스 소스)와 매우 유사한 맛을 가지고 있어 호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바비큐와 잘 어울려 많이들 찾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알려진 호주는 바비큐와 해산물 외에도 유럽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음식문화와 식품 산업이 활성화 되어있어 수입식품을 많이 들여오고 있기에 해당 제품은 호주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호주 사람들이 본인의 취향에 따라 직접 굴라쉬, 슈니첼 등의 외국 음식을 조리하며 일상적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산 집시 소스]

기타 가공식품

수요 증가 ▲ “ 육류 중심의 식단에 느끼함을 잡아줄 피클 양배추의 인기도 제고 ”

소스 및 조미료 전문 수입유통업체인 Premier Food And Beverages Pty Ltd의 회계담당자 Mr. Ian의 인터뷰에 따르면, 유리병 안에 담긴 수입산 절인 양배추의 판매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일상적으로 바비큐를 즐겨하는 하는 호주 사람들에게 느끼함을 잡아줄 새콤달콤한 맛의 절인 양배추의 인기가 상승하여 고기가 재료인 음식과 모두 잘 어울리는 가공식품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샐러드 섭취량도 높지만, 호주 채소류의 잦은 가격인상과 바쁜 생활로 인해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쉽게 오래 먹을 수 있는 수입산 채소 보존식품을 선호하는 점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수입산 절인 양배추]

신선식품

수요 증가 ▲ 가격 하락 ▼ “ 해산물 소비 진작, 저렴하게 구매해서 저렴하게 유통하자 ”

신선 해산물 수입유통업체인 Naturally Australian Meat & Game Pty Ltd의 Mr. David 구매부 매니저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해산물의 더욱 높은 소비가 진작되고 있는 추세라 밝혔다. 이에 당사에서도 해산물 중 생선의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미 높은 해산물 소비량을 자랑하는 호주는 해산물 시장도 매우 발달되어 있으나 현지에서의 소비가 공급량을 훨씬 웃돌아 일찍부터 소비의 일부분은 수입 해산물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선 및 해산물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저렴하게 구매하여 판매를 했고, 이에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Mr. David도 가격이 낮아진 명확한 이유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일시적일 것이라 덧붙였다.



[수입 생선류]